

농업박람회 관람객 51만명 '대박'

11일간 대장정 막 내려 VR·AR 시현 첨단농업관 인기 수출상담회 2400만달러 MOU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지난 17일부터 나주시 산포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펼쳐진 '2019국제농업박람회'가 27일 11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36개국 447개 기관·기업·단체가 함께 한 박람회에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바이어와 농업인, 현장체험 학습을 나온 청소년, 가을 나들이를 나선 가족

단위 관람객까지 51만명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목표 관람객인 45만명을 넘어섰다. 총 5개 마당 12개 전시·판매·체험관에서 14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이어져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미래 농업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로 시현한 첨단농업관이 인기를 끌었다. 패블 중심 전시에서 오감만족 실물 체험 전시로 플랫폼을 개선하고 관람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시관별 전문 도슨트 인력을 배치하는 등 농업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

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대한민국 최대·유일의 농업종합 박람회의 비즈니스 성과도 빛났다. 농협경제지주 대외마케팅부와 전남 원예 농산물 1000억원 구매약정이 현장에서 체결되고, 국내 유통업체 바이어(MD) 초청 상담회가 진행되는 등 국내 우수 농식품 기업을 발굴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행사들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주관으로 함께 한 수출상담회에서는 218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고, 18개국 46개사 바이어와 2400만 달러의 양해각

서(MOU) 및 계약이 이뤄졌다. 행사 기간 중 농기자재·특산물 판매 수익 42억원, 국내외 구매약정 2284억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성일대표이사(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는 "4회째 준비된 국제행사이니 만큼 더욱 다채로운 전시콘텐츠와 실적이 있는 비즈니스 박람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 행사의 성과를 발판 삼아 2021년에는 더욱 확장된 행사 추진을 목표로 서울 등 대도시 개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블루이코노미 실현 일자리 창출 핵심 기업 청년 인턴 100명 지원

전남도가 새천년 비전인 '정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 6대 핵심 프로젝트 관련 일자리 창출사업을 청년인턴 지원으로 본격화할 계획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청년인턴 지원은 블루 이코노미 일자리 창출 분야 최우선 사업으로 기획됐다. 기업에 대한 청년인턴 참여 방식의 선도인력 매칭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2020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100명의 청년에게 인턴 사업비를 지원한다. 참여자 선발 기준은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순천시 소상공인 희망 페스티벌 전남도민과 함께하는 2019 소상공인 희망 페스티벌이 26일 오후 순천시 연향동 공영주차장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허석 순천시시장, 최재태 전국소상공인연합회장, 이갑주 전남지회장, 정인화·이정현 국회의원, 전남소상공인 연합회 회원 등 참석자들이 제로페이·전남·순천시사랑상품권 사용 선포식을 하고 있다.

여수 세계한상대회 2억 달러 비즈니스 성과

52개 나라 참여...3일간 열려 청년 일자리 '창출의 장' 발원

여수에서 3일간 열린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52개 나라 7000여 한상 및 국내 경제인의 참가 속에 2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성과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내실있는 대회로 막을 내렸다. 특히 올해 한상대회는 그동안 행사를 치르며 다져온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활로 모색'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도 발전했다.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7일 재외동포재단,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우수 기업 100개사를 포함한 245

개기업(313개 부스)이 참가한 '기업전시회'와 '1대1 비즈니스 마팅'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1만2652건의 상담을 하고, 2억1411만 달러의 비즈니스 성과를 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비즈니스 면에서 지난 17년간의 그 어떤 대회보다도 가장 내실 있는 대회였다"며 "2억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 실적을 내고 역대 최다인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외양 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22일 폐막식에서 밝혔다. 실제로 지난 23일 진행된 '케이푸드 트레이드 쇼(K-Food Trade Show)'에는 해외 수출에 관심이 많은 국내 식품기업과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등 글로벌

유통단체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내 참여 기업을 직접 선정해 한상과의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마련하는 등 차별화된 내용으로 진행됐다. 케이푸드(K-Food)에 대한 세계적 관심에 힘입어 대회 종료 이후에도 비즈니스 성과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열린 '전라남도 혁신기술 구매상담회'에는 대기업 60개사와 중소기업 128개사가 참여해 305건의 구매상담과 202억원의 실적을 냈다. 또 '전라남도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34개 기업과 1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79명이 현장 면접을 실시해 6명이 채용됐고 120여명이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11월2일 무등산 정상 개방

정상구간 탐방 예약제 장애인·보호자 48명 참여

광주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달 2일 오후 들어 두 번째로 전국의 탐방객들에게 무등산 정상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정상개방 행사에는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48명이 함께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광주장애인자활협회를 통해 참가자를 공개 모집했다. 참가자 선정은 무등산 정상탐방 경험이 없는 자, 중증장애인, 개인 신청자 우선 선발 등의 조건으로 진행됐다. 무등산 정상개방 구간은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군부대 후문을 통과해 부대 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람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 구간이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번 정상 개방과 관련해 무등산국립공

원사무소는 11월2일 서석대-군부대 정문(0.9km) 구간에 탐방 예약제를 시행하므로, 사전예약은 필수다.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은 국립공원통합예약시스템(http://reservation.knps.or.kr)에서 가능하며, 현장접수(장불제, 목고, 서석대)도 추가로 진행해 탐방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상부 탐방예약제를 이용하는 탐방객에게는 예약제 손목 띠가 제공되므로 정상부 탐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목고와 장불제에서 신분증 확인 및 현장 접수 후 제공되는 손목 띠를 착용해야 한다. 무등산 정상은 지난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2011년 첫 개방을 시작으로 2019년 불철 개방까지 23차례 개방해 총인원 43만5000여 명이 다녀갔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전공대 범시도민 기구 구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중앙정부,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범시도민 추진기구를 구성해 서둘러 한전공대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7일 새로운 도약의 기폭제 한전공대 설립은 600만 호남권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한전공대 설립은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를 지키는 것으로 수도권 일극화의 양극화를 치유하고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지방과 수도권, 호남과 영남의 경제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때까지 지방과 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한 사

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대명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에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전공대 설립에 제동을 거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치권은 한전공대 설립 추진에 정파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일을 해서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한전공대 설립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건립 시기를 지연하는 등의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며 "당초 공약대로 추진해 2022년 3월에 정상 개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 대성황

전남도가 청사를 이용해 개최한 '2019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이 국내외 해상교량 전문가, 관련 기업 등이 참석하며 대성황을 거뒀다. 전남도청사에서도 전시관편성 행사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도청 내 1층 로비, 왕인실 등에서 열린 2019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에 유럽, 미국, 홍콩 등 국제교량학회 회원과 국내외 해상교량 전문가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남도, 목포 등 7개 시·군, 한국도로공사, 대한토

목학회와 관련 건설회사 및 설계회사 등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세계 각국의 관련 학회 관계자,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해 해상교량 관련 첨단기술, 미래 트렌드, 비전 등을 논의하고 상호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호평을 받았다. 중·고 등학생을 위한 교량 모형 경진대회, 대학·대학원생 참여의 포스트 세션 논문 발표, 해상교량 우수 구조물 전시회, 해상교량 건설기술 엑스포(EXPO), 전남도 해상교량 관련 서·상 홍보 및 특산물 판매부스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펼쳐져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민국 대표 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JEJUair
제주항공과 함께하는
무안 출발

하이난&괌 신규취항 기념
특별할인 혜택!
5% 할인

- 10/30일까지 예약시 - 단, 현금결제 조건
- 하이난 품격, 광 정품 상품만 적용가능

신규 취항
동양의 하와이
하이난

11/9,13,16,20,23,27 12/4,7,11,14~
매주 수(5일), 토(6일)출발

알뜰 하이난(싼야) JEJUair 5/6일
279,000부터 [₩850(5일), ₩60(6일) 선택관광 있음]

- 무안/하이난(3/4)기내비/무안
- 전 일정 중5성급 호텔(그랜드 매트르 파크 호텔/코니퍼 호텔)
- 자유시간/호텔 내 부대시설, 대중해 해변, 푸싱제+열대일시장, 삼아면세점(CDF), 왕복항공료 및 각종 TAX, 호텔, 식사, 차량, 가이드, 여행자보험 1억원

품격 하이난(싼야) JEJUair 5/6일
719,000부터 [선택관광 있음]

- 무안/하이난(3/4)기내비/무안
- 전 일정 정5성급 호텔(원게이트 바이원덤 싼야 루후이더우호텔)
- NO기사/가이드경비, NO소품, NO운선
- 자유시간/호텔 내 부대시설+약 \$160 상당 읍선 관광(대소동천, 핑랑빌리지, 녹회두 공원, 대중해 해변, 푸싱제+열대일시장, 전시마사지 1시간 제공), 왕복항공료 및 각종 TAX, 호텔, 식사, 차량, 가이드, 여행자보험 1억원

신규 취항
힐링여행
괌

12/24,25,26,27,28,29 1/1,2~ 매일출발

정통 괌(성인2+소아2 패밀리특가) JEJUair 4일
949,000부터 [₩830(성인), ₩10(소아) 선택관광 있음]

- 무안/괌(3)/무안 P1 PIC리조트 3박(워터파크 및 부대시설 이용)
- 자유시간/호텔 내 부대시설, 현지 픽업 신청시 2일차 시내(스페인 광장, 사탕의 절벽, 파세오 공원),왕복항공료 및 각종 TAX, 호텔(PIC 리조트-슈퍼리어룸 기준), 여행자보험 1억원, 전일정 호텔식(골프카드, 환타지디너쇼-현장에어 필수)

니를 위한 최고의 여행지 **다낭**

다낭/호이안 (4명이상 출발) JEJUair 4일
정통 699,000부터 [₩850 선택관광 있음] • 무안/다낭(3)/무안

- 10/26,28,29,30 11/1,2,3,4,5~ 매일 출발
- 전 일정 특급 호텔(번펠리르비프론트 호텔/오금), 1일 자유시간
- 바나산 국립공원, 대성당, 카오다이고 사원, 내원고, 편가사당, 풍홍 의집, 광조화관 등, 전통마사지 1시간, 투분강 보트투어+호이안 박물관, ICE커피 1잔+열대과일 사시, 노비누 1개(1인당) 제공 등

다낭/호이안/후회 (2명이상 출발) JEJUair 4일
알뜰 549,000부터 [₩850 선택관광 있음] • 무안/다낭(3)/무안

- 10/26,28,29,30 11/1,2,3,4,5~ 매일 출발
- 전 일정 특급 호텔(다나시티 호텔/오금), 바나산 국립공원
- 대성당, 카오다이고 사원, 내원고, 편가사당, 풍홍의집, 광조화관 등, 전통마사지 1시간, 투분강 보트투어+호이안 박물관, ICE커피 1잔 & 열대과일, 노비누 1개(1인당), 카이민 왕복, 후에 왕궁(오로, 태화전, 자금성 등)

휴양천국 힐링여행지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초특급 리조트) JEJUair 5일
품격 929,000부터 [₩830 선택관광 있음] • 무안/코타키나발루(3)/무안

- 10/31 11/7,14,21,28 12/5,12 [단, 7회 한정특가]
- 전 일정 초특급 3박(안타우 리조트/오금)
- 호핑투어(마무릭섬), 투아만 선셋낚시투어, 섀넌 나이트 투어, 비치 샌들, 비치백 중점, 코타키나발루 시내관광(제셀린포인트, 사바주청사, 이슬람사원), 현지식 BBQ, 스타보트, 비비방, 리조트 석식 1회 등, 섀넌 나이트투어 진행시(선셋상+아지징투어+코코넛으로 시음)

코타키나발루(준특급 호텔) JEJUair 5일
알뜰 479,000부터 [₩830 선택관광 있음] • 무안/코타키나발루(3)/무안

- 10/31, 11/7,14,28 12/5,12,19,26~ 매주 목요일 출발
- 1일자유+시내관광+악시나이트투어, 링가호 호텔(준특급/오금)
- 아일랜드 호텔, 악시 나이트 투어, 라군픽 선셋보트, 시내관광(제셀린포인트, 사바주 청사, 이슬람사원), 현지식 BBQ, 스타보트, 현지

즐거자 휴양과 액티비티를 동시에 **세부**

세부(솔레이씨부리조트) JEJUair 5일
품격 549,000부터 [₩850 선택관광 있음] • 무안/세부(3)/무안

- 10/25,26,30 11/5,12,19,26~ 매주 화,수,금,토 출발
- NO기사/가이드 경비,NO소품&이동장갑, 전 일정 5성급 리조트
- 호핑투어, 스톤마사지 1시간, 열대과일시장, 체합다이빙 강습회, 레크로 코 민속공연 관람 및 디너, 코코넛 비누+드라이빙+아모모일, 스텝 바스켓, OFF로션, 막탄 아랑강상, 베이비용품, 씨푸드 런치, 리조트 석식 1회, 세부 시내관광(산페드로 요새등) 등

세부(세미픽-소드그란드리조트) JEJUair 5일
알뜰 469,000부터 [₩850 선택관광 있음] • 무안/세부(3)/무안

- 10/29,30 11/1,2,5,6,8,9~ 매주 화,수,금,토 출발
- 공스파+스테이크+디스커버리투어, 준특급 호텔
- 공스파 45분, 막탄디스커버리투어, 체합다이빙 강습, 세부 시내, 밍고 1KG+열대과일부, 씨푸드 & 스테이크+ 모호도 1잔, 무제한 삼겹살

가성비 마, 여행 최적기에 떠나는 대만

대만(화려/야류/지우펀) JEJUair 4일
품격 899,000부터 [선택관광 있음] • 무안/타이베이(3)/무안

- 11/5,6,8,9,12,13~ 매주 화,수,금,토 출발
- 전 일정 특급(신타이메이 푸신 호텔/오금), 대표 관광지(지우펀, 야류 해상공원, 고궁박물관, 스핀 청동체합-4인조 황금박물관 금관지기, 총화 사), 10타워 전망대, 화관국립공원, 전시마사지 1시간, 대만의 유명 먹거리(다우바 사브사비, 덤핑 레스토랑, 삼형제, 광부도시락) 등

대만(화려/야류/지우펀) JEJUair 4일
정통 579,000부터 [₩850 선택관광 있음] • 무안/타이베이(3)/무안

- 11/5,6,8,9,12,13~ 매주 화,수,금,토 출발
- 전 일정 준특급 호텔(타이메이 인하우스 호텔/오금)
- 지우펀, 야류 해상공원, 고궁박물관, 스핀 청동, 총화사, 화관국립공원, 대만의 유명 먹거리(덤핑 레스토랑, 몽골리인BBQ) 등

가견포함내역 크루즈 선실료 및 항공료,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인전경비포함] ●여행유/ ●여행지/ ●항공권/ ●여행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c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지] 필요로 하는 일부 선택경비(관광) 있음/입을 상용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이 선택시 대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지역별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격에 별도 포함 [메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하비한 사항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여행경비는 여행비 가산제외로만 인입되고 있습니다. ●종료구정: 일반여행업 제47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업번호: 02-999-9999 ●여행업번호: 1589-9992 ●여행업번호: 부산항/소초항 ●출발일 10명 ●코스 2인 1실 사영(일부객 제외) ●교통: 항공, 버스, 크루즈(선형에 따라 차가 있음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 입국권, 숙박권은 판매구경에 따라 취소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